

“종단 수익사업 전담할 지주회사 설립해야 한다”

법안스님 ‘종단재정 활성화 공청회’서 제안



‘수익사업 원칙’

- ▶ 불교적 가치 담보
- ▶ 공익성 추구
- ▶ 안정적 수익모델 창출

종단의 재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담조직으로서의 ‘법인체’인 ‘지주회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가 지난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종단 수익사업 진단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스님(사진)은 ‘종단 재정사업의 원칙과 방향’이라는 주제의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법안스님은 종단 수익사업의 원칙으로 △불교적 가치 담보 △공익성 추구 △안정적인 수익모델 창출 등을 제시한 뒤 종단 수익사업의 전체적인 기획과 마스터플랜 수립, 운영, 회계, 집행 등을 담당할 전담조직으로서 별도의 법인체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스님은 “설립된 사업법인은 ‘지주회사’로 설립한 뒤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 성격의 사업단위를 다시 설립해 각각의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종단이 수익사업체를 운영하는 가장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스님은 종단 수익사업을 위한 별도의 법인체 설립에 앞서 전초과정으로서 종단 수익사업을 관장할 컨트롤타워인 ‘조계종 수익사업위원회’를 설립해 사업분야의 중복을

피하고 수익사업의 장기적 기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익사업위원회를 통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조계종출판사, 전통불교문화원, 국제선센터, 총무원 재무부 등이 각각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일원화하고 그 관장 주체를 설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외부 컨설팅전문기관에 의뢰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익사업진행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

법안스님은 가톨릭의 평화드림과 대만 자재공덕회 등의 수익사업을 분석한 뒤 종단의 다양한 인프라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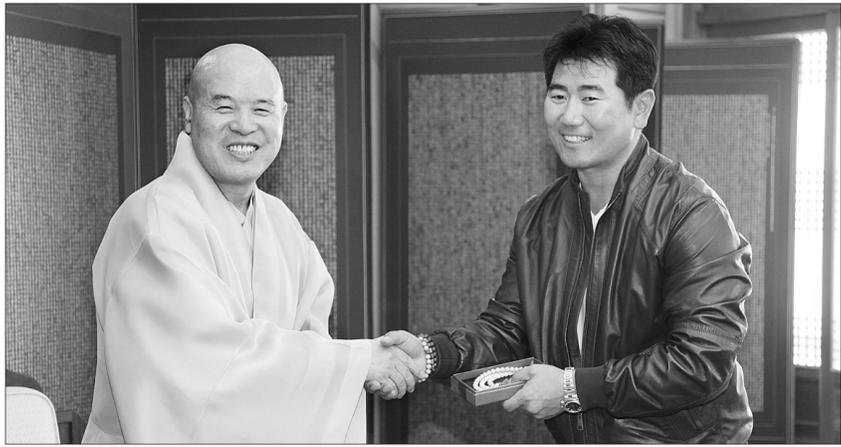
활용해 출판사업과 불교수목원, 사찰음식사업, 장례사업,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건축불사사업, 친환경농산물 유통, 국제명상센터 건립, 유무형문화재 콘텐츠개발사업 등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각 분야마다 구체적인 사업안을 제안했다.

이와 장영욱 총무원 재무부 사업팀장은 ‘종단 재정사업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그동안 종단에서 추진한 다양한 수익사업은 △종단 내 충분한 의견수렴 및 동의 절차 미비 △타당성 검토·전문가 컨설팅 등 검증없는 시행 △본말사에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 진행 및 종단 협조요청으로만 사업 진행 △전문인력 부재와 사업적 관점에서의 사업 부재 등을 손꼽았다.

또한 장 팀장은 “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행정조직에서 분리하고 법인화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면서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별도 사업 법인체 설립과 기존 법인 활용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제정스님과 윤남진 NGO리서치연구소장, 이상근 연우와함께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린 토론을 펼쳤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1일 미국 PGA챔프 양용은 선수의 선전을 당부하며 단주와 108염주, 향로 등을 선물을 했다.

“불자 긍지 갖고 좋은 성적 내달라”

총무원장 자승스님, ‘메이저 챔프’ 양용은 골프선수 격려

“양용은 선수가 시합에서 단주를 차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승을 기원했다. 불자라는 긍지를 갖고 앞으로로도 좋은 성적을 내길 바란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1일 조계사를 참배하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은 양용은 프로골프선수를 이같이 격려하며 선전을 당부했다.

지난 2009년 8월 제91회 미국 PGA챔피언십에서 타이거 우즈를 꺾고 역전 우승하며 아시아 남자 골프 선수로는 최초로 메이저대회 우승 기록을 세운 양용은 선수는 불자인 부모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절

에 다녔으며 “어디를 가나 절만 보이면 들어가 절을 한다”고 할 만큼 기원했다. 불자라는 긍지를 갖고 앞으로로도 좋은 성적을 내길 바란다.”

경기마다 단주를 차고 출전하는 양용은 선수는 “뽀뽀한 일정상 절에 자주 갈 수는 없어 단주를 차고 대회에 나가고 있다”면서 “저를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단주를 여기고 있으며 단주를 차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늘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 출신인 양 선수는 제주 영암사가 운영하는 무의탁 노인들을 위한 양로시설 ‘푸른마을 영암 자비암’ 후원모임인 영암자비회 회원으로 10여 년째 보시행을 실천하

고 있다. 특히 2009년 3월 PGA 투어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던 PGA 투어 혼다클래식 우승 상금 일부를 최경주재단을 통해 푸른마을 영암 자비암에 후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편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날 양 선수에게 템플스테이 홍보대사를 제안했으며 양 선수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총무원장 스님은 양 선수의 선전을 당부하며 단주와 108염주, 향로 등을 선물했으며 양 선수는 PGA대회 우승 사진과 사인 불, 골프모자 등을 선물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여성불자 공간 필요” “방안 있으면 돕겠다”

총무원장 스님-김원장 환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김애주 원장 등 불교여성개발원 임원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김애주(사진) 불교여성개발원장은 “여성불자를 위한 교육관 등 전용공간 마련을 서원하며 지난 8월 입제한 뒤 오는 11월25일 후원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총무원장 스님께서 관심 갖고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종단도 공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설명한 뒤 “원장님께서 원력을 세우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것이며 저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돕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인택 기자

종단 요양시설 선정 복지제도 본격 시행

조계종이 스님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슬러노후복지제도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요양이 필요한 스님들이 이용하게 될 요양시설을 지정하는 등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계종 슬러복지회(회장 영담스님, 조계종 총무부장)는 지난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종단 지정 요양시설’에 대한 협약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화성 모회원, 경주 불교성원 등 전국 22개 요양시설이 스님들의 노후를 맡을 종단 지정 요양시설로 선정됐다. 이날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직접 각 시설장들에게 협약 지정서와 현판을 전달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시설장들의 동참을 치하한 뒤 “종단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앞으로 계속 지원을 늘려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라며 “제도가 빠르게 정착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화성 모회원 원장 보각스님은 “복지 현장에서 열심히 뛰며 불교사회복지 발전의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조계종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한다

내년부터 10년간 전개 문화부, 업체 2곳 선정

전통사찰과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조계종이 2012년부터 10년간 전통사찰 방재 예측시스템 구축 사업을 전개한다. 방재 예측시스템 구축 사업을 계기로 화재나 도난,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전통사찰을 보존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진명스님)가 추진하는 전통사찰 방재 예측시스템 구축사업은 사후대처 형식인 방재시스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재난을 사전에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전기화재 예측시스템과 지능형 통합 관제시스템 두 분야로 추진된다. 오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2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정부 및 지자체 부담 80%) 실시될 예정이다. 전국 938곳의 전통사찰 가운데 조계종 산하 750개 전통사찰의 해당 교구 본사 주지 스님의 추천을 받아 대상 사찰을 선정할 예정이다.

원활한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문화부는 지난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본과회의실에서 방재 예측시스템 구축사업 업체 인준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조계종 인증업체로 전기화재 예측시스템에는 새턴정보통신이, 지능형 통합 관제시스템에는 파스텍이 각

각 선정됐다. 이날 수여식에서 총무부장 영담스님은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대신해 김영수 새턴정보통신 대표와 이성진 파스텍 대표에게 각각 인준서를 수여했다. 이들 업체들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2년간 조계종 인증업체로 방재 예측시스템 구축에 나서게 된다. 조계종 산하 전통사찰에서 방재 예측시스템 구축을 시행할 경우에는 이들 업체에서 시설향해야 한다.

총무부장 영담스님은 “전통사찰의 불교 건축은 대부분 목재로 화재 등 방재에 취약한 실정”이라며 “사명감과 공익을 위한 마음을 갖고 앞으로 열심히 활동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엄태규 기자

‘종교시설 투표소 증가’ (1면에 이어)

또 2007년, 2010년, 올해까지 줄곧 교회에서 투표가 이뤄진 사례도 있다. 신림동 제2투표소와 신사동 제1투표소는 지속적으로 특정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했다. 중앙동 제1투표소와 행운동 제2투표소, 서원동 제4투표소는 연이어 천주교 성당을 투표소로 사용했다. 행운동의 경우 2007년에는 공공시설이었지만 종교 시설로 장소가 바꿨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관계당국은 개선의지가 불투명해 보인다는 비판 여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 허진민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자문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종교시설을 사용할 수 없지만 예외조항을 편의에 따라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변호사는 “예외조항은 공공시설이 부족하거나 전혀없는 낙도에서나 적용가능 할 법하다”고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다. 관악구의 경우 2007년 대선 때는 총 25곳을,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총 6곳을 사용하는 등 특정종교시설 투표소를 대폭 줄였다. 하지만 올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는 다시 11곳으로 늘었다. 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08년 교육감 선거 때는 단 2곳에 설치했다. 특정종교시설 투표소 수가 들쭉날쭉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봤을 때, 서울

시선관위가 지난 9월5일 공문을 통해 “평일이라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었다”는 답변은 신빙성이 떨어져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10·26 서울시장 재보선 때도 같은 특정종교시설에 투표소가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공공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며 “투표는 어떤 사상이나 종교 이념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서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본지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공공시설에서 특정종교시설로 투표소를 변경한 까닭에 대해 서울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서를 보냈다.

석주당 정일대종사 열반 7주기 추모재 및 기념관 개관식

석주당 정일대종사께서 세원이 다하여 임적하신지 어언 7년이 되었습니다. 일평행 중생교화와 불교의 현대화를 위해 헌신하셨던 대종사의 크신 발자취와 덕망을 추모하는 7주기 추모재와 기념관 개관식을 종단의 원로 대덕 큰스님, 문도스님 및 사부대중 여러분들을 모시고 봉행하고자 하오니 무무 참석하셔서 큰스님의 덕을 더욱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 일 시 _ 2011년 10월 29일 (음 10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
- 장 소 _ 보문사(은양) 큰법당

※종단 지침에 따라 여비는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선학원 보문사 보문사 041-545-6531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200번지 칠보사 02-732-1424

